

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 절반은 60세 이상

경기둔화 우려에도 한국
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93
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
용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
있다. 지난해 취업자 감소에
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음
에도 증가 폭은 오히려 두
달 연속 확대됐다.

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
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는
늘고, 실업자와 비경제활동
인구는 주는 등 견고한 고
용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.

15일 '뉴시스'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'2022년 5
월 고용동향'을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지난달 취
업자 수는 2,848만 5,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 5,000
명 늘었다.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(103만 4,000
명)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.

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
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감소하다가 작년 3월부터
증가세로 전환했다.



▲ 서울 중구 식당가의 분주한 모습. 사회적 거리 두기 해
제 등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종의 취업자가 늘고 있다.
사진=shutterstock

산업별로 보면 보건업
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7만
8,000명·6.9%), 농림어업
(12만2,000명·7.9%), 운수
및 창고업(12만명·7.7%), 숙
박 및 음식점업(3만4,000
명·1.6%) 등에서 증가했
으나 도매 및 소매업(-4
만5,000명·-1.3%), 금융
및 보험업(-3만9,000명·-
4.9%) 등에서 감소했다.

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
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, 지난달 1일부터 실외
마스크 해제 등으로 대면이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
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.

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5만9,000명이나 늘었
다. 증가한 일자리 중 절반 가까이 고령층 일자리
라는 이야기다.

이어 50대에서 23만9,000명, 20대에서 18만5,000
명, 40대 3만6,000명, 30대 6,000명 등 전 연령층에
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극단선택 OECD 1위 '불명예'

한국의 자살률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
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.

14일 '뉴시스'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
중희망재단은 이날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.
이 백서는 지난 2014년 이후 9년째 발간하고 있다.

통계의 최신 자료인 2020년 수치를 보면 자살자 수
는 1만3195명,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의
미하는 자살률은 25.7명이다. 각각 전년대비 4.4%씩
감소했다.

그러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국가별 연령 구
조 차이 보정을 위한 연령표준화 값을 활용한 결과
한국의 자살률은 2019년 24.6명으로 회원국 중 1위
이자 OECD 평균 11.0명보다 2.2배 높다.

2020년 자살 사망 통계 세부 사항을 보면 남성이

68.9%인 9,093명, 여성이 31.1%인 4,102명이다. 남
성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은
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.

연령별 자살률은 80대 이상이 62.6명으로 가장
많고 70대 38.8명, 50대 30.5명, 60대 30.1명, 40
대 29.2명, 30대 27.1명, 20대 21.7명, 10대 6.5명
순이다.

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노인 자살률이 1위인데, 가
장 큰 원인이 신체적, 정신적 문제이고 경제적 어려움
도 영향을 미친다"며 "다행히 노인 자살률은 조금
씩 낮아지는 추세"라고 말했다.

자살 동기는 정신적 문제 38.4%, 경제생활 문제
25.4%, 육체적 질병 문제 17.0%, 가정 문제 7.0%,
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3.9%, 남녀 문제 2.8% 순
이었다.

10원짜리,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



1966년부터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이 발행 중단
의 갈림길에 섰다. 현금 사용량이 갈수록 줄어드
는 가운데 물가마저 오르면서 10원 동전이 설 곳
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.

15일 '서울경제'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
날 '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'
를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 중인 동전
가운데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화 비
중은 76.9%(금액 기준)로 나타났다. 방치된 주화
금액은 9,564원으로 일상거래를 위한 동전(2,877
원)보다 3.3배 많다.

특히 액면 가치가 낮은 50원화와 10원화는 방치
된 동전 비율이 각각 89.6%, 89.7%로 매우 높은
수준이다. 50원과 10원 동전은 10개 중 9개가 버
려진 상태라는 것이다. 전체 방치 주화의 절반이
10원짜리 동전이다.

전통시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, 편의점에서도
10원 동전은 환영받지 못한다. 거스름돈으로 쓸
일이 없다 보니 동전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다
는 것이다.

10원은 화폐 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비싸 만들수
록 손해이기 때문에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
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. 개별 화폐 제조 단가는
기밀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
개당 20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. 대국민 화폐
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10원 동전에 대한 만족
도는 가장 낮다.

한은 내부에서는 10원과 함께 1원과 5원 동전의
액면 폐지와 새로운 은행권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
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
것으로 알려졌다.

사진=shutterstock

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

"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"

천관우 변호사 그룹

DACA 연장, 드림비안
및 불체자 구제안
관련 상담중

이민법, 상법,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

고국에 계신 부모님/배우자 영주권 신청

이민법

영주권 (취업 1,2,3순위 이민 - NIW, 국제적기업간부급, 간호사 포함,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, 종교이민)
각종 비이민비자 (H1B, R1, E2, E1, L1, F1, O, P, TN/TD비자 등), DACA, 601A Waiver, 245i
추방유예상담, J1 Waiver, 영주권 인터뷰, 재입국허가서, 영주권 재발급, 시민권 신청
*취업 영주권 상담 /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/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

부동산법

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/강제퇴거명령(이박션)/Title에 대한 분쟁-Quiet the title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상법

계약분쟁 소송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천관우 변호사
서울고·연세대·법학박사
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
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
josephlaw1224@gmail.com

☎ 상담문의

LA Office

213-232-1655
3600 Wilshire Blvd., #1227, Los Angeles, CA 90010

OC Office

714-522-5220
6281 Beach Blvd., Suite 300, Buena Park, CA 90621